

나눔과 봉사로 담긴 172톤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

- 11월 27일(월), 전국 ‘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’ 개최
- 다양한 지역·연령·계층이 김장봉사에 참여하여 통합과 화합 분위기 확산
- 김장 김치는 전국 소외계층에 나눔,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 지원

- 어린아이부터 어르신, 다문화가정, 외국인까지 전국에서 보낸 나눔과 정성으로 버무려진 172톤의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.
- 11월 27일 오후, 17개 광역시·도 45개 기초 시·군·구 등 자치단체에서 나눔 김장을 진행하여 이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.
- 행정안전부(이상민 장관)는 11월 27(월),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‘국민 대통합 김장행사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를 비롯해 농협 등 기업과 민간단체,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하여 김장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마음을 실천했다.
-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김장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4년 동안 열지 못했다.
-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김장행사를 하나로 모아 ‘국민 대통합 김장행사’를 추진했다.
- 김장은 겨울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, 이웃 간 나눔의 정신, 가족 간 결속,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라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.

※ 2013년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

-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(월)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온 국민 2천여 명과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진행했다.
 - 이번 김장에는 전국의 재료*를 하나로 모아 다양한 연령·계층의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·봉사·통합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.
 - * (배추) 경기 파주, (고춧가루) 충북 괴산, (쪽파) 충남 예산, (양파·마늘) 경북 의성, 경남 창녕, (생강) 전북 완주, (무) 전남 영암, (표고버섯) 강원 양양, (소금) 울산, (젓갈) 제주 등 전국 지역농협에서 공급
 - 킨텍스 행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김장행사 현장이 중계되었고, 전국에서 도착한 국민 대통합과 따뜻한 사회를 기원하는 응원메시지가 송출되어 전국이 하나의 행사로 화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.
 - 이 자리에는 6세의 최연소자 어린이부터 84세의 최고령자 어르신까지 나이를 초월해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였으며, 몽골·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, 외국인 유학생, 다문화가정,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특별히 참여했다.
 - 인천에서는 “오늘 담근 김치처럼 조화롭게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”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, 광주에서는 “함께 만들어 낸 빨간 물결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주길 바란다”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. 부산에서는 모두의 정성이 모여 “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”는 응원이 전해졌다.
- 킨텍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,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김치 담그기와 기부에 동참하였다.
- 킨텍스에서 담근 김치는 푸드뱅크 물류망을 이용하여 전국의 긴급지원 대상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.
 - 이번 김장행사는 위생복과 위생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.

- 한편, 킨텍스 김장행사에서는 11월 28일 ‘2030세계박람회’ 개최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,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마련되었다.
- 11월 27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김장행사에는 총 8천여 명*이 참여하였으며, 어린이, 청년, 노인, 외국인 근로자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나눔 행사로 개최됐다.
- 전국 행사를 통해 담긴 김치는 약 172톤**에 달하며 이는 2만 3천여 명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.
 - * 8천 명 : 킨텍스 2천 명, 17개 시·도 2천5백 명, 45개 시·군·구 3천5백 명
 - ** 172톤 : 킨텍스 25톤, 17개 시·도 75톤, 45개 시·군·구 72톤
- 이상민 장관은 “오늘 모인 정성과 나눔의 마음이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마음, 국민 대통합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이방무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하참샘 (044-205-3103)



참고 1

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 개최 개요

□ 행사 의의

- 전국의 재료를 하나로 모아 다양한 연령·계층의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김장을 담그며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확산

□ 행사 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11.27.(월) 13:00~15:30 / 경기 고양시 킨텍스
※ 전국 동시 개최(17개 시도, 45개 시군구) 및 현장 영상 송출
- (주최)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농협
- (참석) 행안부장관, 농식품부장관, 주한미대사, 한국경제인협회장, 농협중앙회장, 청년, 노인, 외국인근로자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학생, 자원봉사자 등 총 2,000여명
※ 시도(2천5백여명)·시군구(3천5백여명) 자체행사 참석 인원 약 6천여명
- (주요 내용) 김장 담그기 후 전국 소외계층에 나눔

□ 행사 계획

시 간		주요 내용
13:00~13:40	40'	참가자 입장
13:40~14:00	20'	김장 담그기 방법 등 설명
14:00~15:30	90'	김장 행사

참고 2

김장재료

